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드러켄밀러(SEC 13F, 4Q25 보고서)

“드러켄밀러 누적 수익률 917%, S&P500 완전 압도 ... SEC 13F 에서 드러난 진짜 매수 전략은?”

- 누적 포트폴리오 수익률 917%로 동 기간 S&P 500 293% 압도
- 개별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ETF 와 대형 플랫폼주로 재편
- 상단에서 거시 측면 자산배분, 하단은 구조적 성장주 등 이중 매수 전략

누적 포트폴리오 수익률
S&P 500 보다 3 배 많은 917%

포트폴리오 수익률 917%로 동 기간 S&P 500 293% 압도

드러켄밀러 포트폴리오는 2013년 8월 13일 이후 2026년 3월 18일 기준 누적수익률 916.5%를 기록해 S&P 500 의 293.1%를 크게 상회하였다. 연평균 수익률도 20.2%로 S&P 500 의 11.5%보다 높아 장기 복리 성과가 매우 우수한 편이다. 다만 최대 낙폭은 -39.6%로 S&P 500 의 -33.9%보다 깊었고, 변동성도 24.2%로 지수의 17.2%보다 높았다. 즉 드러켄밀러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을 감수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초과수익을 만들어낸 전략으로 해석된다.

보유 상위 10 대 종목은
성장주에서 → 매크로
ETF 및 대형 플랫폼 종목

개별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ETF 와 대형 플랫폼주로 재편

2025 년 4 분기 13F 보유 상위 10 대 종목 핵심은 개별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ETF 와 대형 플랫폼주를 섞는 방향으로 재편했다는 점이다. 나테라(NTRA)는 여전히 최대 보유 종목이지만 비중은 소폭 낮아졌고, 대신 금융 섹터 ETF(XLF), 브라질 ETF(EWZ), 동일가중 ETF(RSP)와 아마존(AMZN)이 새로 상위권에 들어왔다. 즉 공격적인 종목 선택은 유지하되, 포트폴리오 전체 변동성을 낮추고 거시 환경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정으로 해석된다.

주요 순 매수 상위 10 대 종목

상단에서 거시측면 자산배분, 하단은 구조적 성장주 보강한 이중 전략

2025 년 4 분기 포트폴리오 순매수 상위 10 종목은 금융, 브라질, S&P500 동일가중 ETF 를 통한 거시 자산배분과, 아마존·알파벳·씨.엔테그리스·래티스·블룸에너지·알코아 같은 성장주 보강이 동시에 나타난 분기였다. 즉 ETF 로 시장 방향성과 자금 흐름을 먼저 잡고, 플랫폼·반도체·전력·소재 종목으로 초과수익을 노리는 이중 전략이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드러켄밀러가 강점을 가진 거시 판단과 종목 선택을 따로 보지 않고 함께 운용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주요 순 매도 상위 10 대 종목

헬스케어 일부 차익 실현 및 경기민감주 정리, 신흥국 익스포저 축소 등

이번 분기 드러켄밀러의 순매도 상위 10 종목은 “핵심 헬스케어는 유지, 비 핵심 종목은 정리, 글로벌 베타는 축소”라는 세 줄로 압축할 수 있다. 테바제약(TEVA), 나테라(NTRA), 인스메드(INSM)는 각각 순매도 상위에 올랐지만 잔존 비중이 남아 있어 핵심 투자 아이디어는 유지된 반면, 베로나파마(VRNA), 메타플랫폼(META), 카펜터테크놀로지(CRS), 씨티그룹(C), 트윌리오(TWLO)는 전량 매도되며 우선순위가 낮아졌다. 여기에 MSCI 신흥국 ETF(EEM)와 대만반도체(TSM)도 줄이면서, 시장 전체 변동에 대한 노출과 AI 공급망 관련 비중을 함께 조정한 흐름이 나타났다.

[드러켄밀러, SEC 13F 보고서 핵심 정리]

드러켄밀러 포트.
누적수익률 917%
vs
S&P 500 293%

드러켄밀러 포트폴리오는 2013 년 8 월 13 일부터 2026 년 3 월 18 일까지 누적수익률 916.5%를 기록해 S&P 500 의 293.1%를 크게 웃돌았다. 연평균 수익률도 20.2%로 S&P 500 의 11.5%보다 높아 장기 복리 성과가 매우 우수한 편이다.

다만 최대 낙폭은 -39.6%로 S&P 500 의 -33.9%보다 깊었고, 변동성도 24.2%로 지수의 17.2%보다 높았다. 즉 드러켄밀러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을 감수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초과수익을 만들어낸 전략으로 해석된다. 즉 시장이 강할 때는 유망 테마에 적극적으로 올라타고,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실현과 비중 조절을 병행한 점이 높은 수익률의 배경으로 보인다.

[표 1] 드러켄밀러(듀케인 패밀리 오피스) 헤지펀드 핵심 자료 요약

헤지펀드	실적발표	서류제출	포트폴리오 AUM(십억\$)	핀릿 커버 (십억\$)	실제보유 종목(개)	커버리지 종목(개)	핀릿 커버 상승여력	컨센서스 상승여력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	20251231	20260217	4.5	2.3	60	27	15.1% ~ 22.5%	-8.0% ~ 40.3%
연평균수익률	연환산위험	샤프	MDD	1Y	3Y	5Y	10Y	MAX
20.2	24.2	0.83	-39.6	22.3	39.2	17.9	20.7	20.2
1W	1M	3M	6M	1Y	3Y	5Y	10Y	MAX
-1.2	-3.9	-4.7	-5.3	22.3	169.5	127.6	556.0	916.5

주: 샤프값은 연평균수익률/연환산위험의 단순 샤프값 적용

자료: SEC 13F, 핀릿 리서치센터

상위 10 대 종목

드러켄밀러의 2025 년 4 분기 13F 핵심은 개별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ETF 와 대형 플랫폼주를 섞는 방향으로 재편했다는 점이다. 나테라(NTRA)는 여전히 최대 보유 종목이지만 비중은 소폭 낮아졌고, 대신 금융 섹터 ETF(XLF), 브라질 ETF(EWZ), 동일가중 ETF(RSP)와 아마존(AMZN)이 새로 상위권에 들어왔다.

즉 공격적인 종목 선택은 유지하되, 포트폴리오 전체 변동성을 낮추고 거시 환경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정으로 해석된다.

무엇을 매수했나

2025 년 4 분기 순매수 전략은 단순한 종목 비중 확대를 넘어, 금융·브라질·S&P500 동일가중 ETF 를 통해 시장 전체의 방향성과 자금 흐름에 먼저 베팅하고, 그 위에 플랫폼·반도체·소재·전력 인프라 종목을 덧붙이는 구조로 정리된다.

즉 이번 분기의 핵심은 개별 기업 선택보다 위에서는 시장 전체 흐름에 맞춘 자산배분을 하고, 아래에서는 장기 성장주를 보강하는 이중 전략이 이번 분기의 핵심이다. 이는 드러켄밀러가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크로와 종목 선택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묶어 운용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무엇을 매도했나

이번 분기 주요 순 매도는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일부 차익 실현, 반도체·플랫폼·경기민감주 정리, 신흥국 익스포저 축소”로 요약된다. 이번 분기 상위 매도 종목에는 테바제약(TEVA) -3.3 억달러, 나테라(NTRA) -1.8 억달러, 인스메드(INSM) -1.6 억달러가 포함되었지만, 세 종목 모두 분기 말 기준 잔존 보유 비중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 매도는 핵심 투자 아이디어를 포기했다기보다, 주가가 많이 오른 구간에서 일부 이익을 실현하며 포트폴리오 쓸림을 완화한 조정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드러켄밀러, SEC 13F 헤지펀드 수익률 분석]

누적수익률 917%
vs
S&P 500 293%

드러켄밀러 포트폴리오는 2013년 8월 13일 이후 2026년 3월 18일 기준 누적수익률 916.5%를 기록해 S&P 500의 293.1%를 크게 상회하였다. 연평균 수익률도 20.2%로 S&P 500의 11.5%보다 높아 장기 복리 성과가 매우 우수한 편이다. 다만 최대 낙폭은 -39.6%로 S&P 500의 -33.9%보다 깊었고, 변동성도 24.2%로 지수의 17.2%보다 높았다. 즉 드러켄밀러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을 감수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초과수익을 만들어낸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림 1] 드러켄밀러 포트폴리오 vs S&P 500 지수 수익률 비교



자료: SEC 13F, 핀릿 리서치센터 유니버스 기준

적극적 교체 매매
강한 장세는 테마
고점에서 차익 실현 및
비중 조절 병행

이 같은 성과는 분기마다 상위 보유 종목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조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3년에는 쿠팡(CPNG), 엔비디아(NVDA), 마이크로소프트(MSFT), 일라이 릴리(LLY), 텍 리소시스(TECK)를 담았고, 2024~2025년에는 나테라(NTRA), 테바제약(TEVA), 인스메드(INSM), 우드워드(WWD), TSMC(TSM)가 상위권으로 이동하였다. 2025년 4분기에는 보유 종목 수가 58개로 줄었지만 포트폴리오 가치는 42.2억 달러로 늘었다. 또한 16.8억 달러를 매수했지만 19.1억 달러를 매도해 순매도 2.25억 달러를 기록했다. 즉 강한 장세에서는 테마를 타고,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과 비중 조절을 병행한 점이 높은 누적수익률의 배경으로 보인다.

스타일에 묶이지 않는
유연성

이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가지 스타일에 고정되지 않는 유연성이다. 초기에는 GOOGL, MSFT, META, AMZN 같은 대형 기술주 비중이 높았고, 이후 CPNG, NVDA, LLY, FCX를 거쳐 최근에는 NTRA, INSM, TEVA, XLF, RSP 등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단순 성장주 추종이 아니라, 거시 환경과 업황 변화에 맞춰 섹터와 종목을 바꾸는 전략이라는 뜻이다. 드러켄밀러식 운용의 핵심은 장기 보유보다 국면 전환에 대한 빠른 판단에 있다.

거시 환경과 업황에
탄력 대응 전략

고수익의 원천은
유연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

이 포트폴리오가 투자자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좋은 수익률이 단순히 좋은 종목 몇 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춘 판단 전환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누적 916.5%라는 성과만 보면 매우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계속된 매도·매수 재조정과 상위 보유종목 교체의 결과이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는 이를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핵심 종목을 다시 점검하고 수익이 난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원칙을 배우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즉 드러켄밀러 포트폴리오는 고수익의 본질이 예측 자체보다 유연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SEC 13F 보고서 및 수익률 검증 방식]

SEC 13F 보고서	미국 SEC 13F 보고서는 1 억 달러 이상을 운영하는 기관투자운용사가 제출하는 분기 보유 공시이다. 분기 말 기준 보유 종목을 바탕으로, 분기 종료 후 45 일 이내 SEC 전자공시 시스템에 제출된다. 보고서에는 종목명, 수량, 시장가치 등 포트폴리오 구성 및 매매 정보 가 담겨 기관의 투자 방향과 매매 흐름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공시에는 최대 45 일 시차가 있어, 이를 실시간 매매 내역으로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
규모와 유동성 등 여전히 지속성의 투자의사결정 구조	비록 SEC 13F 보고서에는 최대 45 일의 공시 시차가 있지만, 대형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규모와 유동성 제약 때문에 단기간에 급격히 바뀌기 어렵다 . 따라서 보고서에 담긴 보유 종목과 비중 변화는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일정 부분 이어질 수 있는 투자 판단의 흔적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3F는 기관의 중기 전략을 읽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며, 실제로 이를 기반으로 한 추종 전략이 일정한 유효성을 보였다는 연구와 실증 결과도 존재한다.
(주)핀릿 유니버스 커버율 약 70% 상회	핀릿 유니버스로 드러켄밀러 포트폴리오를 커버하는 비율은 분기 평균 71.2%, 2020 년 이후에도 72.6% 수준으로, 겉보기에는 완전 복제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드러켄밀러 13F 의 성과를 설명하는 핵심은 모든 종목을 빠짐없이 담는 데 있기보다, 실제 수익 기여도가 큰 대형주·핵심 ETF·주요 비중 종목을 얼마나 포착하는가에 있다. 즉 빠진 종목 수 자체보다 핵심 종목의 가치 비중을 얼마나 잘 담았는지가 더 중요하므로 , 현재 유니버스만으로도 전략 방향성과 수익률 흐름을 해석하는 데 충분한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드러켄밀러 포트폴리오 운용자산(AUM) vs 핀릿 커버리지 AUM 비교 추이



자료: SEC 13F, 핀릿 리서치센터 유니버스 기준

수익률 검증 방식	수익률 검증은 핀릿 유니버스 기준으로, 13F 보고서가 실제 공개된 날에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다음 공시일에 매도하는 방식 으로 계산했다. 이는 투자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사용한 현실적인 모의투자 방식이다. 비록 13F 는 약 45 일 늦게 공개되지만, 대형 기관은 포트폴리오를 단기간에 크게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분기말 보유 종목과 공시 시점 종목의 성과 차이는 크지 않아, 본 방식은 타당한 검증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

[현재 및 직전분기 보유 상위 10 대 종목]

거시 대응력
높이려는 조정

드러켄밀러의 2025년 4분기 13F 핵심은 개별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에 ETF와 대형 플랫폼주를 더해 구조를 넓혔다는 점이다. 나테라(NTRA)는 여전히 최대 보유 종목이지만 비중은 소폭 낮아졌고, 대신 금융 섹터 ETF(XLF), 브라질 ETF(EWZ), 동일가중 ETF(RSP)와 아마존(AMZN)이 새로 상위권에 들어왔다. 즉 공격적인 종목 선택은 유지하되, 포트폴리오 전체 변동성을 낮추고 거시 환경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정으로 해석된다.

[표 2] 2025년 4분기 보유 상위 10 대 종목 등

(단위: 억 \$)

종목 (티커)	현재 (4Q25)		직전 (3Q25)		증감 (비중,%)	비고 (섹터)
	Value	비중(%)	Value	비중(%)		
나테라 (NTRA)	5.8	12.8	5.3	13.1	-0.3	헬스케어
금융 섹터 ETF (XLF)	3.0	6.7	-	-	6.7	ETF
인스메드 (INSM)	2.6	5.7	3.5	8.6	-2.9	헬스케어
MSCI 브라질 ETF (EWZ)	2.5	5.5	-	-	5.5	ETF
S&P500 동일가중 ETF (RSP)	2.2	5.0	-	-	5.0	ETF
아마존 (AMZN)	1.9	4.3	-	-	4.3	경기소비재
테바제약 (TEVA)	1.8	4.1	3.4	8.3	-4.2	헬스케어
우드워드 (WWD)	1.8	4.0	1.6	3.9	0.0	산업재
TSMC (TSM)	1.7	3.7	2.1	5.3	-1.6	정보기술
쿠팡 (CPNG)	1.6	3.6	1.5	3.7	-0.1	경기소비재
메르카도리브레 (MELI)	-	-	1.4	3.4	-3.4	경기소비재
도큐사인 (DOCU)	-	-	1.2	3.0	-3.0	정보기술
베로나파마 (VRNA)	-	-	1.1	2.6	-2.6	헬스케어
MSCI 신흥국 ETF (EEM)	-	-	1.0	2.5	-2.5	ETF

자료: SEC 13F, 핀릿 리서치센터

헬스케어 섹터는
차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차원 비중 조절

2025년 3분기까지 상단을 차지하던 헬스케어 종목 비중은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인스메드(INSM)는 8.6%에서 5.7%로, 테바제약(TEVA)은 8.3%에서 4.1%로 내려가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나테라(NTRA)도 13.1%에서 12.8%로 낮아져 특정 바이오 종목에 대한 집중도를 줄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헬스케어 투자 아이디어를 포기했다기보다, 수익을 일부 확정하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비중을 다시 조정한 움직임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4Q25년 10대 종목
분산과 거시 베팅

이번 분기 새로 상위권에 들어온 종목들의 핵심은 분산 투자와 시장 전체 흐름에 대한 대응이다. 금융 섹터 ETF(XLF)는 미국 금융주 전반, 브라질 ETF(EWZ)는 국가 단위 신흥국 노출, S&P 500 동일가중 ETF(RSP)는 특정 빅테크 편중이 덜한 미국 대형주 분산 효과를 제공한다. 여기에 아마존(AMZN)까지 추가되면서, 개별 바이오·성장주 위주였던 포트폴리오가 소비·금융·지역 분산을 함께 담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종목 픽킹도 중요
그러나 자산배분과
비중 조정은 더 중요

이번 변화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비중 조절과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드러켄밀러도 나테라(NTRA), 인스메드(INSM), 테바제약(TEVA) 같은 기존 확신 종목은 유지하면서, ETF와 아마존(AMZN)을 더해 전체 포트폴리오 구조를 더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초보 투자자라면 처음부터 개별 성장주에만 집중하기보다, ETF를 중심에 두고 확신 있는 종목만 소수로 더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며 손실 관리에도 유리하다.

[4Q25 년 순 매수 상위 10 종목 분석]

개별기업 선택보다
자산배분 및
구조적 성장주 보강

드러켄밀러의 2025 년 4 분기 매수는 몇몇 종목의 비중만 늘린 것이 아니라, 금융·브라질·S&P500 동일가중 ETF 를 통해 시장 전체의 방향성과 자금 흐름에 먼저 베팅하고, 그 위에 플랫폼·반도체·소재·전력 인프라 종목을 덧붙이는 구조로 정리된다. 즉 이번 분기의 핵심은 **시장 전체 흐름에 맞춘 자산배분과 장기 성장주 보강을 동시에 진행한 이중 전략**에 있다. 이는 드러켄밀러가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크로와 종목 선택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묶어 운용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표 3] 2025 년 4 분기 순 매수 상위 10 대 종목

종목 (티커)	순 매수* (억 \$)	포트폴리오		섹 터	비 고
		Value(억 \$)	비중 (%)		
금융 섹터 ETF (XLF)	3.0	3.0	6.7	ETF	신규편입
MSCI 브라질 ETF (EWZ)	2.5	2.5	5.5	ETF	신규편입
S&P500 동일가중 ETF (RSP)	2.2	2.2	5.0	ETF	신규편입
아마존 (AMZN)	0.9	1.9	4.3	경기소비재	
알파벳 (GOOGL)	0.9	1.2	2.7	커뮤니케이션	
씨 (SE)	0.9	1.2	2.7	커뮤니케이션	
알코아 (AA)	0.7	0.7	1.6	소재	신규편입
엔테그리스 (ENTG)	0.7	0.7	1.6	정보기술	신규편입
래티스 세미컨덕터 (LSCC)	0.7	0.7	1.5	정보기술	신규편입
블룸에너지 (BE)	0.6	0.6	1.4	산업재	신규편입

주: 순 매수* 금액은 직전분기 대비 수량 증분을 이번 분기 평균 단가로 환산하여 산정

자료: SEC 13F, 핀릿 리서치센터

ETF 신규 편입 확대

2025 년 4 분기, 첫 번째 축은 **ETF 신규편입 확대**이다. 금융 섹터 ETF(XLF), MSCI 브라질 ETF(EWZ), S&P500 동일가중 ETF(RSP)를 동시에 신규 편입한 것은 특정 종목 하나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 금융 업황 회복 가능성, 신흥국 반등 여지, 미국 대형 기술주 쓸림 완화라는 시장 구조 변화에 자금을 먼저 배치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특히 동일가중 ETF 편입은 소수 초대형주 중심 장세에서 중형·일반 종목군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 대목은 드러켄밀러 특유의 **시장 큰 흐름에 대한 판단**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플랫폼, 반도체 산업
체인 강화

두 번째 축은 **플랫폼, 반도체, 산업 관련 종목을 강화한 것이다**. 아마존(AMZN), 알파벳(GOOG), 씨(SE)는 각각 소비·광고·클라우드·동남아 디지털 플랫폼 성장성을 겨냥한 매수로 해석된다. 이는 단순히 기술주 선호라기보다 글로벌 소비와 디지털 전환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에 가깝다. 동시에 엔테그리스(ENTG), 래티스 세미컨덕터(LSCC), 블룸에너지(BE), 알코아(AA)는 반도체 공정 소재, 저전력 칩, 분산 전력 인프라, 산업 금속까지 포괄하며 AI 인프라 확장과 제조업 회복 가능성에 함께 베팅한 조합으로 볼 수 있다. 즉 **성장주의 범위를 소프트웨어에서 제조·전력·소재까지 넓힌 점**이 특징이다.

바벨형 전략

이번 매수는 한쪽에 몰아넣는 공격적 집중이라기보다, **ETF 로 큰 흐름을 잡고 개별 성장주로 추가 수익을 노리는 양쪽 분산형 구조**에 가깝다. 초보 투자자는 종목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드러켄밀러가 왜 금융·플랫폼·반도체·전력 같은 영역을 동시에 담았는지, 그 산업 논리를 읽는 데 집중하는 편이 더 유효하다.

[4Q25 년 순 매도 상위 10 종목 분석]

헬스케어
일부 차익 실현 등
포트폴리오 조정

드러켄밀러의 2025 년 4 분기 매도는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일부 차익 실현, 반도체·플랫폼·경기민감주 정리, 신흥국 투자 비중 축소로 요약된다. 이번 분기 상위 매도 종목에는 테바제약(TEVA) -3.3 억달러, 나테라(NTRA) -1.8 억달러, 인스메드(INSM) -1.6 억달러가 포함되었지만, 세 종목 모두 분기 말 기준 잔존 보유 비중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 매도는 핵심 아이디어를 버렸다기보다, 기존 주가 상승 구간에서 일부 이익을 실현하며 포트폴리오 집중도를 낮춘 조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표 4] 2025 년 4 분기 순 매도 상위 10 대 종목

종목 (티커)	순 매도* (억 \$)	포트폴리오		섹 터	비 고
		Value(억 \$)	비중 (%)		
테바제약 (TEVA)	-3.3	1.8	4.1	헬스케어	
나테라 (NTRA)	-1.8	5.8	12.8	헬스케어	
인스메드 (INSM)	-1.6	2.6	5.7	헬스케어	
베로나파마 (VRNA)	-1.1	-	-	헬스케어	전량매도
MSCI 신흥국 ETF (EEM)	-0.9	1.1	2.3	ETF	
대만반도체 (TSM)	-0.7	1.7	3.7	정보기술	
메타플랫폼스 (META)	-0.6	-	-	커뮤니케이션	전량매도
카펜터 테크놀로지 (CRS)	-0.5	-	-	산업재	전량매도
씨티그룹 (C)	-0.5	-	-	금융	전량매도
트윌리오 (TWLO)	-0.5	-	-	정보기술	전량매도

주: 순 매도* 금액은 직전분기 대비 수량 증분을 이번 분기 평균 단가로 환산하여 산정

자료: SEC 13F, 핀릿 리서치센터

좋은 종목도 많이
오르면 매도하여
비중 조절의 사례

헬스케어에서는 테바제약(TEVA) 1.8 억 달러, 비중 4.1%, 나테라(NTRA) 5.8 억 달러, 비중 12.8%, 인스메드(INSM) 2.6 억 달러, 비중 5.7%가 남았다. 즉 드러켄밀러는 제네릭 의약품, 유전자 진단, 희귀질환 치료라는 성장 축을 유지하면서도, 급등 이후 포지션 과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부를 줄인 것으로 읽힌다. 초보 투자자 관점에서는 “좋은 종목도 많이 오르면 일부 매도해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전량매도 종목은
확실히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종목

이번 분기 전량 매도 종목은 베로나파마(VRNA), 메타플랫폼스(META), 카펜터테크놀로지(CRS), 씨티그룹(C), 트윌리오(TWLO)다. 호흡기 신약 기대의 베로나파마, 광고 플랫폼 메타, 특수합금의 카펜터, 글로벌 은행 씨티,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의 트윌리오를 모두 비운 것은 단순한 개별 종목 이슈보다 자금 회전과 포트폴리오 단순화에 더 무게를 둔 결정으로 보인다. 특히 전량매도는 부분 매도보다 훨씬 강한 신호이므로, 드러켄밀러가 이들 종목에서는 우선순위를 확실히 낮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MSCI 신흥국 ETF(EEM) -0.9 억달러, 대만반도체(TSM) -0.7 억달러도 함께 줄였다. EEM 은 신흥국에 분산 투자하는 ETF 이고, TSM 은 AI 반도체 핵심 생산사이므로 이번 매도는 시장 전체 움직임에 대한 노출과 AI 공급망 관련 비중을 함께 소폭 낮춘 조정으로 해석된다.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좋은 종목이라도 비중이 너무 커지면 줄일 수 있어야 하며, 전량 매도는 그 투자 아이디어의 우선순위가 낮아졌다는 비교적 강한 신호로 볼 필요가 있다.

핀릿 리서치센터



AI PERSONAL FINANCIAL ROBOARDVISOR

유사투자자문업 신고(2025. 10. 28)

금융당국,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AI 엔진
(제 1 차, 2 차, 3 차, 22 차 심사 통과 및 승인)

제 3 차 K-Demo day China, 최우수상 수상

과기정통부 K-Global 300 ICT 유망기업 인증

홈페이지: <https://finlittovstock.com/>플랫폼: <https://kr.tovstock.com/><https://us.tovstock.com/>텔레그램: t.me/tovstock_korea1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의 작성자 핀릿 리서치센터는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